닛신보의 아시아 전략

불과 2년만에 해외생산 거점망을 만들어(Ⅱ/Ⅱ)

◎ 인도네시아 생산거점

① “니까와 · 텍스타일”의 방직거점

닛신보는 중국에 대하여만 잇달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2000년 11월에 합판 방직회사인 “니까와 · 텍스타일”의 주식을 일본의 “가네마쓰”사로부터 추가로 사들여 자회사화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닛신보는 합판하면서 방적 4만 8,384추, 연사기 1만 7,960추, 직기 34대를 증설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10월이면 모든 증설작업을 완료하여 “니까와”의 보유방적시설은 8만 64추가 되고, 직기는 총 216대가 된다.

“니까와”가 생산하는 실은 모두 “니까와”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하나의 자회사인 “기스 · 텍스 · 닛신보”에 공급된다. 닛신보는 “니까와”가 제작한 생지직물의 반은 닛신보가 소화하고, 나머지 반은 “기스 · 텍스”가 가공하게 될 것이다.

② “기스 · 텍스”의 제직 · 가공거점

“기스 · 텍스 · 닛신보”는 닛신보가 앞장서서 설립한 직물의 염색 가공회사로서 1998년 12월부터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기스 · 텍스”는 2001년 8월에 직기 86대 규모의 직포공장을 신설하여, 직포 · 가공공장이 되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직물도 생산량의 반 정도는 닛신보가 소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닛신보의 해외자회사 및 관련회사 시설상황

구 분 / 단위	출자 비율	방기	직기	편기	월간가공능력		기타
					직물	편지	
	(%)	(추)	(대)	(대)	(만m)	(톤)	
인도네시아							
니까와 · 텍스타일	73.3	80,064	216				
기스 · 텍스 · 닛신보	60		86		230		
중국							
상주명력	33.3	71,692	954				
항주일면	33.3	49,584	572	14	300	100	
영파유과면방직	25	90,000					
영파일중방직인염	10		200		200		사 염
브라질							
닛신보 · 드 · 브라질	100	65,376					
해외 계		356,716	2.028	14	750	100	
국내 계		307,000	710	47	550	80	

◎ 닛신보의 경쟁력 본격적인 보강효과

닛신보는 불과 2년만에 합판회사의 보유시설과 자회사의 보유시설을 단순합산(單純合算)하면, 브라질을 뺀 아시아 여러 나라에 29만추의 방적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실로부터 사염, 제직, 편성, 염색가공

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체제도, 인접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완성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생산체제뿐만 아니라 이 체제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생산 및 관리기술과 영업능력이 발휘되면 동남아의 섬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생산 거점망이 완전히 가동되는 2004년도에는 닛신보의 섬유사업본부의 판매실적 중 20% 정도가 이들 해외생산 거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보강될 것으로 판단된다.